

보배농장

육계 HACCP 인증 8호농장

안전한 닭고기 생산으로 소비촉진에 기여



▲ 보배농장 전경(좌), 이상근 사장과 부인 조점이 여사의 다정한 모습(우)

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그동안 소, 돼지에 국한되어 있던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육계 사육단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해 닭 농장에서도 HACCP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안전고품질축산물종합생산시범 추진사업단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시설자금 2천만원을 지원(농촌진흥청, 용인시 각 50%)하고, HACCP 컨설팅 그룹 정P&C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보배농장(사장 이상근)은 시장동향과 지금 지원을 받은 농가들의 반응을 살피고는 ‘이거다’ 싶은 생각에 자비를 들여 교육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축산의 꿈을 이룬 용인

이상근 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낙농의 꿈을 안고 훌훌단신 김해로 가 무작정 소를 키워보았으나 오히려 적자를 보았다. 이후 땅을 빌려 원예

농사도 해보았으나 이마저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던 중 축산을 하려면 경기도로 가라는 조언에 용인으로 오게 되었고, 용인에 와서는 돈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열심히 일했다. 이를 눈여겨 본 한 지인의 권유로 거처를 옮겨 닭을 키우



▲ 계사 내 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이상근 사장



▲ 입추를 앞두고 깨끗하게 정리된 계사

기 시작했으나 처음 키운 닭들은 출하시기에 이르러 수해로 인해 모두 다 떠내려 가버렸다.

이렇게 숱한 실패를 거듭하고 마침내 자신의 계사를 지었지만 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양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보니 어느새 양계만 15년째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6개 동에서 평균 5만수를 5.5회전 하고 있다.

닭들도 정수기 물 마신다!

이 사장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계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사양성적을 낼 수 있

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였다.

건강한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 사장의 투자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정수기가 있다. 이것은 닭들을 위한 것으로 사람이 그러하듯이 닭들에게도 정화된 물을 먹이는 것이다. 이후, 전에 비해 닭들이 질병에도 덜 걸리고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사양 성적이 좋길 바라는데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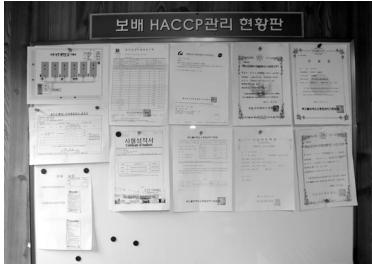
HACCP는 일상사

HACCP의 중심은 매뉴얼이다. 모든 문서화가 되어있다 보니 그동안 쭉 해오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용어로 정리되어 있어 그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 그 외의 다른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차단방역’과 ‘기록관



▲ 보배농장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음수분배기



▲ 보배농장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현황판과 문서철



▲ 물품반입창고, 사람 이외 모든 물품은 농장으로 들어가기 전 필히 이곳을 거쳐야 한다

리' 다. 실제 차단방역 시설을 통해 AI 등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례로 물품반입창고를 만들어 농장에서 쓰는 약품 등의 반입품은 이곳에서 24시간 자외선 소독 후 농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질병 감염을 사전에 차단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축산물!

이 사장은 먹거리의 안전성이 대두되는 요즘 안전하고 깨끗한닭을 길러내는 것도 소비자들의 먹거리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농장도 HACCP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하며, 안전축산물에서 더 나아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축산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축산물로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레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닭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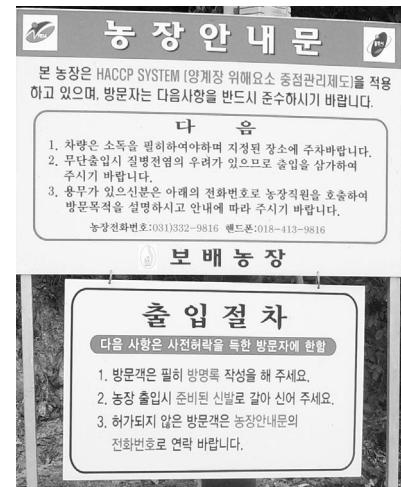
보배농장은 현재 계열사 닭을 키우고 있다. 출하시기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항생제 잔존유무를 확인한다고 한다. HACCP를 준비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추가로 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종계장, 부화장에서도 HACCP 인증 이뤄졌으면

인증을 받음으로써 양계의 3박자 사양, 사료, 병아리 중 사양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사료는 농장에서 시행되기 전에 이미 HACCP 제도가 도입됐다. 여기에 완벽한 HACCP를 위해선 병아리의 상태



▲ HACCP 관리 현황판이 꾸며져 있는 상황실과 물품반입창고



▲ HACCP 농장임을 알리는 안내문



▲ HACCP 인증 심사를 받을 때의 모습

만 남았다. 종계장과 부화장들도 HACCP 인증을 받으면 농장에서는 믿고 병아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증된 병아리를 받는 것이야말로 농가에서 최고로 바라는 것이다. 건강한 병아리를 들임으로써 더욱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맷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사장은 취미로 양봉도 조금 하고 있다. 이제는 자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농가를 이끌고 있는 세대가 이만큼 산업을 키워왔지만 앞으로 농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력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축산인구가 노령화 되는 이유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까닭인데 이를 뛰어넘는 장점을 내세워 요즘 같은 불황에 취업에 목매고 있는 젊은 이들이 농가에 관심을 가져보게 하는 것은 어떨까? 넉넉한 수입이 보장된다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과 함께 아쉬움을 내비쳤다.

취재 | 이경현 기자
i727i@naver.com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 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